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효과

김영희*

¹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Yeong-Hee Kim^{*}

¹Jinju Health College Nursing Department

요약 이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전공별 이론·실습과 교양·인성함양 2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입학 전 예비 신입생에게 2주 동안 주 5회 10회기동안 70시간 운영되었다. 자료분석은 paired t-test, ANOVA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대학생활적응($t=11.42, p<.000$)과 간호전문직태도($t=12.45, p<.000$)는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f a freshman at college which consists of two area : theory-practice and liberal-cultivation of character and college freshman for 70 hours, 5 a week in 10 session for 2 week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 t-test, ANOVA.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core for college life adaptation($t=11.42, p<.000$)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t=12.45, p<.000$)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The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Keywords : Adaptation, Attitude, College, Professional

1. 서론

1.1 연구필요성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감과 인생관 확립 및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로, 전문성과 사회성을 개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직업을 설정해서 적응해가야 한다[1].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의 직업선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대학생활에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에 대학생 시기의 적응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적 성취나 대인관계 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경험에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3], 최근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상호협력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요구에 의한 간호학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적응 학생들은 점

본 논문은 2015년도 진주보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eong-Hee Kim(Jinju Health College)

Tel: +82-55-742-1224 email: gyumdung20@naver.com

Received September 16, 2015

Revised (1st October 6, 2015, 2nd October 26,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간호학에 입문 할 때부터 79.9%의 대상자들이 국내 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이라는 병원취업에 대한 직업결정을 한 상태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지만 간호전문직에 대한 성찰 없이 곧바로 직업을 갖게 되어 입사 1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는 69%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이러한 이직은 결국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의료인력 양성의 비용 손실이 우려가 되며, 자존감과 자신감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신입생 시기에 올바른 간호전문직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간호전문직 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며 대학 신입생 시기부터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1,3]. 간호학생때 간호전문직태도가 올바르게 확립이 되면 간호사 일에 대한 가치, 진로분야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향후 간호사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태도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5]. 따라서 대학생활을 통해 간호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태도를 가지고 간호의 전문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낯선 대학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도모를 위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진로태도성숙, 애착, 교우관계, 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1-2, 6], 실제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로는 LCSi를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7], 멘토링 프로그램[8]등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성장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대학에 이미 입학한 간호학생 대상으로 자기탐색 및 선후배간의 관계형성을 통한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성취적인 면과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적응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며[3],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동료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및 유대감을 갖는 것으로도 여겨진다[9]. 특히 대학 신입생 기간은 대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8],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간호학부의 간호교육목표 달성 및 입학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전공별 이론·실습과 교양·인성영역 두 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즉, 대

학생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확보된 입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유 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성 및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적성 불일치를 해소하고 예비간호사로서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태도를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전공별 이론실습 및 교양·인성영역으로 구성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러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입학 전에 실시한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둘째,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3 용어정의

1.3.1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대학의 환경 내에서 대학생이 생활하면서 요구되는 학업은 물론 대인관계를 포함한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효과적이게 대처하여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1],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부에 수시전형 합격 후 예치금을 납부한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서 본 대학 간호학부 주관으로 전공별 이론·실습 영역 및 교양·인성영역으로 구성하여, 주 5회 1일 7시간씩 2주 동안 전임교원 및 각종 프로그램의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며[1], 본 연구에서

는 Bake과 Siryk[9]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박희석[10]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대학생활 적응척도 (Revise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RSACQ)로 측정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3.3 간호전문직태도

간호전문직태도는 과학적인 근거와 지식을 기반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를 의미하며[11],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12]가 개발하고 한상숙, 김명희와 윤은경[13]이 수정하여 사용한 간호전문직태도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전에 예비 신입생에게 실시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소재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부에 재학중인 신입생 중 대학 입학 전에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62명 중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62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 Power program 3.1.5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는 중간이상인 .40으로 산출했을 때 34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 중 대학 입학 전에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한 62명 모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중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5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적 성취가 중요시되고 있으며[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8]와 본 대학의 설립이념 및 간호학부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1번인 인성함양의 성

과달성 반영 및 본 대학에서 2회째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진행되었던 윈터스쿨 프로그램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간호학 교수 5인, 교육학 전공 교수 1인, 교양담당교수 1인, 영어전공담당교수 2인, 기존의 윈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교수 1인, 총 10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간호학부에 수시전형 합격 후 예치금을 납부한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서,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주 5회 1일 7시간씩 2주 동안 총 10차시로 구성하였다. 1차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습실 견학 및 멘토멘티 결연식 즉 선배 1명과 신입생 4명으로 조를 구성하여 2주간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잘 수료하도록 하였다. 멘토학생은 1년 전에 본 대학에서 예비 신입생 대상의 윈터스쿨에 참여한 학생 중 지원자 15명을 선발하여, 선배로서의 역량 발휘 기회 및 경험을 충분히 전수해주도록 하였다. 멘토는 멘티학생들과 점심식사와 산책을 같이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및 실습실 견학 안내와 전공실습시 가이드 역할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부터 9차시는 오전에는 교양영역인 기초토익과 전공기초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수업, 오후에는 각종 인성함양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10차시는 오전에 풍선아트, 오후에는 멘토-멘티간의 소감발표 및 프로그램진행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료식을 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공별 이론·실습과 교양·인성 영역 총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별 이론·실습 영역은 전공별 기초교과목 강의 및 실습으로, 교양·인성영역은 기초토익 및 각종 인성함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별 이론·실습 영역은 2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전공별 이론영역은 해부학과 간호영어 교과목을 이론 및 Mobile-Learning의 방법으로 전공담당교수가 2개 반으로 구분하여 각 반별로 매일 5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간호영어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준별 Mobile-Learning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공별 실습영역은 건강사정 실습과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각 전공실습실에서 모형 및 진신인형을 대상으로

전공담당교수가 3개 반 20명~22명으로 분반하여 2인 1조로 짝을 지어 50분 동안 주 3회 실습을 하였다.

교양-인성영역도 2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교양 영역은 2주 동안 매일 2시간 동안 기초토의를 전공담당교수가 강의 및 실습을 하였으며, 컴퓨터활용 실습과 레포트 작성방법 실습은 각각 2주 동안 3시간씩 총 2회 교양담당교수가 진행하였다. 인성영역은 전문강사에 의해 팔로십 프로그램, 마인트컨트롤 프로그램, 손발마사지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풍선아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주당 1~2회 실시하였다.

2.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과 Siryk[9]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박희석[10]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대학생활적응척도(Revise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RSACQ)의 도구로서 4개의 하위영역(개인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으로 분류되며, 총 25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Chrobach's α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Chrobach's α 는 .94이었다.

2.3.3 간호전문직태도

간호전문직태도는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12]가 개발하고 한상숙, 김명희와 윤은경[13]이 수정한 도구로서 5개의 하위영역(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으로 분류되며, 총 18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태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Chrobach's α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Chrobach's α 는 .9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간호학부에 수시전형 합격 후 예치금을 납부한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 동안 이루어졌다. 실험처치 및 자료수집은 2014년 1월 6일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입학식 직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사후 설문조사는 대학입학 4분의 1시점이 지난 5주차로 2014년 3

월 31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본인이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무기명 처리됨을 포함하는 서면동의서를 받고, 사전조사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전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수거함에 자율적으로 넣고 나가도록 하였으며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동일한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사후조사는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실시 후 대학입학 4분의 1시점이 지난 5주차에 각 강의실에서 해당 대상자에게만 사후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각 층별로 학생휴게실에 위치한 수거함에 자율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8.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사전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종속변수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제 특성별 사후 종속변수의 차이비교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2.14세였고, 성별은 여학생이 47명(82.4%), 남학생이 10명(17.5%)이었으며, 입학전형은 정원내 일반전형 34명(59.6%), 특별전형 10명(17.5%)이었다. 학과 지원동기는 취업 28명(49.1%), 전문직 12명(21.0%)이었으며, 향후 진로는 병원 39명(68.4%), 공무원 7명(12.2%)으로 나타났다[표 1].

3.2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 사전-사후 종속변수 변화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전과 후의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전 평균은 3.37점에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후의 평균은 3.64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t=11.42, p<.000$), 각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에서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전에 비해 후에 향상되었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후에 대학생활적응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은 학업적 적응으로 .36점 증가하였으며, 개인정서적 적응은 .35점, 대학환경 적응은 .19점, 사회적 적응은 .04점으로 증가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전과 후의 간호전문직 태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 태도는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전 평균 3.72점에서 3.97점으로 .25점 증가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12.45, p<.000$). 각 하위영역별 간호전문직 태도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5개 영역 모두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후에 간호전문직태도가 향상

되었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후에 간호전문직태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은 간호의 독자성으로 .40점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인식 .29점, 간호계의 역할 .23점, 전문직 자아개념 .20점, 간호의 전문성 .20점으로 증가하였다[표 2].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 차이

대상자의 사후 대학생활적응은 향후 진로가 간호사인 군이 3.96점으로 대학원진학 3.65점, 공무원 3.60점, 기타 3.54점, 보건교사 3.51점 보다는 유의하게 높았다($F=2.54, p=.050$).

대상자의 사후 간호전문직태도는 입학전형이 정원내 특별전형군이 4.08점으로, 농어촌전형군 4.07점, 정원내 일반전형군 3.94점, 정원외 대졸자 및 성인재직자군 3.93점보다는 유의하게 높았다($F=4.08, p=.011$) [표1].

Table 1. The Differences of Posttes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7)

Variable	Categories	n(%) or M±SD	Post-test college life adaptation		Post-test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Mean±SD	t/F(p)	Mean±SD	t/F(p)
Age(year)		22.14±.24				
Gender	Female	47(82.4)	3.60±.52	.02 (.844)	3.99±.34	.22 (.825)
	Male	10(17.5)	3.82±.46		3.89±.44	
Type of Admission	General college entrance in quota	34(59.6)	3.6±.54	1.64 (.190)	3.94±.36	4.08 (.011)
	Special college entrance in quota	10(17.5)	3.84±.44		4.08±.32	
	College graduation, Adult work extra quota	9(15.7)	3.46±.40		3.93±.40	
	Farming and Fishing extra quota	4(7.0)	3.86±.51		4.07±.42	
Entering Motivation	Employment	28(49.1)	3.51±.46	.81 (.550)	3.91±.35	.99 (.432)
	Profession	12(21.0)	3.79±.59		4.16±.37	
	Longing	6(10.5)	3.57±.38		3.80±.36	
	Recommendation	7(12.2)	3.81±.55		4.06±.35	
	According to grade	1(1.7)	3.08±.00		4.11±.00	
	Overseas expansion	3(5.2)	4.12±.54		3.37±.38	
Desired Work	Hospital nurses	39(68.4)	3.96±.91	2.54 (.050)	3.97±.33	.33 (.856)
	Health care teacher	4(7.0)	3.51±.52		3.90±.47	
	Public official	7(12.2)	3.60±.59		3.92±.47	
	Entered graduate	2(3.5)	3.65±.51		4.00±.47	
	Etc.	5(8.7)	3.54±.41		4.09±.46	

Table 2. The Comparison of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between and Pretest and Posttest

Variable	Categori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aired t (p)
		M±SD	M±SD	M±SD	
College Life Adaptatio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3.23±.57	3.58±.58	.35±.42	11.42 (<.000)
	Academic Adaptation	3.02±.53	3.38±.54	.36±.44	
	Social Adaptation	3.92±.74	3.95±.65	.04±.56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73±.67	3.92±.71	.19±.76	
	All	3.37±.45	3.64±.51	.27±.18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Profession Self-Concept	3.80±.48	3.99±.52	.20±.38	12.45 (<.000)
	Social Recognition	3.50±.61	3.79±.51	.29±.75	
	Professionism of Nursing	3.74±.40	3.94±.56	.20±.53	
	Role of Nursing Area	3.83±.58	4.06±.63	.23±.61	
	Autonomy of Nursing	3.90±.75	4.31±.77	.40±1.1	
	All	3.72±.39	3.97±.36	.25±.15	

4. 고찰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간 호학생들에게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미치는 효과 및 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신 입생의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공별 이론실습 교과목과 교양 및 각종 인성함양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멘토로 투입하여 멘토의 구체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와 조언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학업계획을 실제적으로 설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2주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은 프로그램 실시 전 3.37점에 비해 실시 후 3.6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LCSl를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 적용 후에 69점에서 83점으로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7], 멘 토링프로그램 적용 후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점 수가 3.39점에서 3.71점으로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8],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3.06점인 연구결과[6], 2.94점인 연구결과[2]에 비하면 본 연구대 상자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 상자들은 대학입학 전에 미리 전공체험을 통한 대학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 증대와 수시전형 입학생들 간의 사 진교류 및 선배와의 멘토멘티 체제 구축으로 인한 정보

교류의 장을 형성해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 역 중 <학업적 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견주어볼 수 있다.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적응>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6], LCSl를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 연구결과[7]와도 일치하였다. 학업적 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2], 이것은 대학입학 전의 전공체험으로 인해 전 공 공부의 중요성 및 미리 체득한 용어의 익숙함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는 수업전공 교수들의 수업진행방식에 대한 익숙함으로 자신감 상승 및 기능적이고 학습된 변 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대학의 정책 중 의 하나로서, 입학자원 선발기준의 입학전형이 매우 다 양하고 입학인원이 많음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한 반 당 35명 미만의 소규모 학생 대상의 수업으로 인 한 장점인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향후에는 대학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체제를 통 해 수시전형 입학생뿐만이 아닌 타 전형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는 전공만족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전공만족은 대학생 활적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서, 미래에 전문직 간호사로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진 간호전 문직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4]. 이 와 같은 맥락으로서 대학생활적응은 향후 진로가 병원간 호사인군에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전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최예숙의 간호학생 전체 학년 대상의 연구결과[15]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 진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서 간호사로서의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여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전문직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4]. 그러나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적응>이 프로그램 적용 전 에 비해 후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4개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결과[6]와도 일치한 것으로서, 사회적 적응이란 대학에서 동료들과 학문적 뿐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로 지내는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2] 학생으로서 다양한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16].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적용 후 대학 입학 5주 시점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아직은 대학의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느끼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것일 수도 있으며, 간호학의 특성 상 타 과에 비해 과중한 학과공부로 인한 교내외 활동이 적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과제나 업무 특히 향후 임상실습으로 인한 어려움은 향후 심각한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지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학생들 스스로 심리적 내적자원으로서 대처방식을 증강시킬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상담실 활성화와 교내외 여러 조직에 참여하여 사회생활의 경험과 봉사활동도 필요할 것이며, 주변의 동로나 교수자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전문직태도는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실시 전 3.72점에서 실시 후 3.9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학 전공 신입생에게 기본간호학실습 교육 전후에 따른 점수가 3.73점에서 3.95점으로 증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17], 전 학년 대상의 간호전문직 점수 3.43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18]. 그러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간호전문직 점수는 3.80점[5]으로 본 연구결과에서의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1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에서처럼[17],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간호실무 활동의 질적인 면과 더불어 타인이 보는 간호에 대한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

치게 된다[18]. 또한 간호전문직 태도를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해서 조사한 결과 간호전문직 태도의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간호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간호전문직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 내 및 교과 외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의 전문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4학년 간호학생 대상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18]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간호사에 대한 전문직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사고와 신념이 근간이 되어서 전문직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18], 본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상 1학년에서는 간호학 일부 전공교과목만 개설 되어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전문직태도는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는 동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18], 1학년의 교과과정에서부터 전공교과목의 개설로 간호전문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입학전형이 수시전형의 농어촌 군에서 간호전문직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입학전형별로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정시전형 학생이 수시전형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19-20]. 본 대학에서의 수시전형 방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은 학생부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생활부 및 심층면접이라고 하였다[19-20]. 따라서 본 대학에서의 일반전형은 심층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나 농어촌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입학 전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농어촌 전형 군에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 및 간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간호전문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험과 배경도 다양할 것이므로, 입학 전형별로 대학생활적응도를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전공별 기초교과목과 교양 및 인성함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대학생활적

응 프로그램은 대학입학 전에 수시전형에 합격한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향후 진로가 간호사인 군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 태도는 입학전형이 정원의 놓여준 군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향후 간호사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직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입문할 때부터 모든 대학생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적용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전에 수시전형에 합격한 57명을 대상으로 2주간 주 5회 1일 7시간씩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으로서, 전공별 이론-실습 영역은 전공별 기초교과목 강의 및 실습으로, 교양인성영역은 기초토익 및 각종 인성함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은 실시 전과 후에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은 향후 진로가 병원간호사인 군에서, 간호전문직태도는 입학전형이 놓여준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입학전형별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성취를 높이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구성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사전사후설계였으므로 대조군을 둔 사전사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 시차를 둔 추적조사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pp.1576-158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76>
- [2] E. A. Kim,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onnam National, Kwangju, 2011.
- [3] M. Y. Kang, Moder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seeking activity, Spec 5 activity on the relation of Job Preparing Stress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onnam National, Kwangju, 2012.
- [4] Y. H. Kim,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 817-828,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17>
- [5]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s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imyung, Seoul, 2014.
- [6]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pp.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7] Y. S. Choi, "Effect of LCSJ-based self-growth program on self-effica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dergraduates", J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pp.3469-3477,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469>
- [8] E. J. Shin, Y. S. Park,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ntoring Program Designed to Assist Nursing Students Adjust to Life in College and Strengthen their Leadership Abilities, J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pp.4595-460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595>
- [9] R. W. Baker, B. Stryx,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pp. 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10] H. S. Park,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the Revise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Focused on Tourism Majors Stud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pp. 346-360. 2007.
- [11] Wynd, C. A. "Current factors contributing to professionalism in nursing", J Prof Nurs, 19(5), pp. 251-261. 2003.
DOI: [http://dx.doi.org/10.1016/S8755-7223\(03\)00104-2](http://dx.doi.org/10.1016/S8755-7223(03)00104-2)
- [12] E. J. Youn, Y. M. Kwon, O. H. Ann, "Development of

-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pp.1091-1100. 2005.
- [13] S. S. Han, M. H. Kim, E. K. Yun, "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 Korean Acad Soc Nurs Educ, 14(1), pp. 73-79.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14] S. O. Choi, J. K. Park, S. H. Kim, "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1(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 [15] Y. S. Choi, "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19(3), pp. 423-43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23>
- [16] Lenz, A. S.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Mentors on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 pp. 195-207, 2014.
DOI: <http://dx.doi.org/10.1002/j.2161-1882.2014.00057.x>
- [17] Y. H. Kim, "Changes in Nursing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s after Practical Education Based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J Korean Acad Fundam Nurs, 14(4), pp. 420-428. 2007.
- [18] Y. S. Ha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ha, Incheon, 2011.
- [19] M. H. Han, S. M. Ba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Adap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mission Type in One Nursing School", J Korean Acad Soc Nurs Edu, 21(1), pp. 46-53,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1.46>
- [20] M. W. Kim, H. J. Lee, Y. J. Lee, "Nursing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Nurs Edu, 20(4). pp. 596-605, 2014. Relationships With Mentors on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 pp. 195-207, 2014.

김 영 희(Yeong-Hee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